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INTER DUKE
가제 : 겨울을 지배할 군주
저자 : Claire Eliza Bartlett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북유럽 왕국을 배경으로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페미니스트 히어로 판타지가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

주인공 에카타는 별안간 홀로 왕국을 지켜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로를 죽여가면서까지 왕위를 차지 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그저 이 난리통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학자로서 자신이 가진 자질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 없이 킬마 왕국의 왕좌를 맡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지난 주 에카타의 동생 벨로샤는 칼에 독성 물질을 묻힌 후 남동생 케브로의 몸을 상처를 냈다. 에카타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벨로샤를 계속 주시하면서 남동생과 똑같은 신세는 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처럼 에카타의 남매들은 그저 티격태격 장난치며 싸우는 그런 일반적인 남매들과는 전혀 다른 이들이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 난 상태였다.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조금 안심해도 되는 날이었다. 형제간의 합의하에 오늘날만큼은 서로를 죽이지 않기로 지정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부 공개의 날로 사람들 앞에 왕국의 모든 가족들이 나서는 날이었고 수많은 이목이 가족에게 집중 되는 오늘 같은 날 맹수처럼 서로를 향해 으르렁 거리는 가족의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시기였다. 또한 오늘은 에카타의 아버지가 에카타가 이 날만 잘 넘기면 자신의 뜻에 따라 세상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날이기도 했다. 신부 공개의 날 후보자들은 왕궁의 연회장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좁고 기다란 발코니 위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아카타네 가족과 혼인의 인연을 맺기를 바라는 열 다섯 명의 어린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웃고 있기도 했고 또 일부는 벌써부터 너무나 지쳐 보였다. 에타카는 그 중에서 어두운 머리 색에 에메랄드와 금색이 섞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한 예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의 팔은 햇빛에 그을려 이국적인 황갈색을 띠고 있었다. 에타카는 태양의 나라에서 왔을 법한 그녀가 왜 이렇게 끔찍 얼어붙은 킬마 왕국으로 온 것인지

그 대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에타카는 녀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윽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마음이 아파왔다. 그 아름다운 소녀는 에타카 자신이 아닌 오빠 리오샤의 신부가 되기 위해 이 곳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홀의 문을 열고 왕국의 수상인 아이란이 입장 하자, 그의 지시에 따라 연회장이 점점 어두워졌고 왕국의 부와 이 나라의 왕이 가진 놀라운 마법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꽃가루들과 진주가 천장에서부터 천천히 휘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진주들은 곧 바로 꽃봉오리로 변하더니 온 사방을 그윽한 향기로 가득 채워버렸다. 하지만 에타카는 아버지가 펼치는 요란한 마법 쇼 속에서 불편한 드레스까지 입고 있느라 점점 지쳐갔고 신부 후보가 한 명씩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올 때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한 마디씩 하는 리오샤와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부모님과 리오샤는 신부 선정을 두고 정치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취향 사이에서 갈등 중이었고 결국 신부 택일은 다음 날로 미뤄졌다. 한편 에카타는 아버지와 리오샤의 언쟁을 지켜보며 불안해졌다. 만약 오빠가 눈밖에 나서 왕위 계승자에서 탈락이라도 하게 되면 그 왕위는 자신이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잠에 들었던 에타카는 악몽에서 깨어나 침대 위에 앉아있던 중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자신의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성의 방문들을 다 두드리며 사람들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인 중이었다. 겁에 질린 에타카와 하녀 아이노는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문을 여는 대신 움츠린 채 숨으려고 했지만 그 때 누군가가 문을 부수더니 에카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에카타가 아끼는 하인 파로드였고 그는 에카타를 '여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에카타가 침실 밖으로 나가자 수상을 포함한 모든 대신들이 에카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에카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에카타는 곧 자신을 제외한 열두 명의 형제들과 부모님까지 다 영원히 잠에 빠져들게 되는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 이 왕국의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교나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이 거대한 음모를 꾸몄을지도 모르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왕국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끌리는 에타카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할 위기에 처한다. 에카타는 결국 그 결혼을 피하기 위해 리오샤가 선택한 신부 후보였던 잉카와 결혼하기로 한다. 에카타는 그녀와 함께 왕국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는 위협과 가족들을 저주에서 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그녀는 왕국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될까? 판타지와 아름다운 레즈비언 로맨스, 모험담이 얽힌 매력적인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엘리자 바틀렛 (Claire Eliza Bartlett)은 콜로라도에서 태어났지만 역사와 고고학을 전공한 후 여러 나라를 떠돌다 덴마크에 정착했다 틈틈히 글을 쓰면서 코펜하겐에서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CHESTER PARSONS IS NOT A GORILLA

가제 : 체스터는 고릴라가 아니란 말이야

저자 : Martyn Ford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모험



***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 액션과 유머, 어린이들을 위한 스릴러가 가득한 다채로운 이야기**

어느 날 열한 살 체스터 파슨스는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그의 능력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고 체스터는 큰 곤란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

체스터는 한 광고 모델 오디션 장에 와 있었다. 체스터가 맡은 역할은 '감자1'이었는데 그리 어려운 연기는 아니었지만 그의 고질적인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도저히 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촬영 감독은 체스터에게 감자처럼 걸어보라는 알쏭달쏭한 요청을 했고 실수가 계속 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체스터를 오디션장에서 쫓아냈다. 바깥에서 체스터를 기다리고 있던 누나 에이미는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더니 전에 엄마가 말한 적 있는 박사를 만나보는 게 어떨겠냐고 물었다. 체스터에게는 앞으로 두 개의 오디션이 더 남아있었고 그 오디션들은 방금 있었던 샌드위치 광고 오디션과는 전혀 다른 급을 가진 영화 오디션이었다. 이미 친구들에게 영화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한 그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누나와 엄마가 말하는 그 최면치료 따위는 전혀 받고 싶지 않았다.

체스터가 집에 돌아오자, 역시 결과를 대충 예상하고 있던 그의 엄마는 다시 최면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체스터는 다음 오디션을 위해서라도 일단 엄마가 소개한 블라도브스키 박사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체스터는 누나와 함께 그 최면 전문가가 있는 상담소에 찾아갔다. 블라도브스키 박사는 체스터를 소파에 눕힌 후 그에게 눈을 감고 다음 주에 있을 오디션 장소가 있다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했다. 체스터는 박사의 지시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 장소에서 느껴질 공포감과 냄새, 소리, 장면까지 생생하게 그려보고 있었다. 박사는 다시 그에게 그 장소에서 자신감에 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더니 체스터에게 눈을 뜨라고 말했다. 체스터는 그의 말에 따라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눈을 뜬 체스터는 분명 뭔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박사의 방, 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이긴 했지만 어쩐지 시선 아래로 박사의 책상에 올라와 있는 서류들이 눈에 보였다. 체스터가 눈을 돌리자 이번에는 소파 위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몸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때 체스터는 깨달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몸이 아닌 박사의 몸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체스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그의 의식이 박사의 의식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최면이 풀린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몸 속에 있었고 아직 눈을 감고 있는 체스터에게 어서 눈을 뜨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체스터는 자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진짜로 눈을 떴다.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온 체스터는 박사에게 당장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체스터는 잠시 그가 상상에 빠졌던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체스터는 여전히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누나와 엄마의 대화에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체스터는 자신이 박사의 몸에 들어갔던 것인지 아님 뇌 혹은 의식 속에 들어 갔었던 것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해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체스터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살짝 열려 있는 누나 에이미의 방문 앞에 섰다. 그리고 아까 최면 치료 중 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체스터의 의식이 누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 간 것이다. 하지만 곧 에이미는 체스터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를 향해 어서 나가라고 말하는 바람에 체스터는 재빨리 자신의 몸을 향해 시선을 보낸 후 본인의 몸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몸 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날 이후, 체스터는 새로 발견하게 된 자신의 능력을 길 시험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고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의식 속으로도 들어가 보았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마음까지 조종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재미있을지 상상해보았다.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체스터는 이 일을 누구에게든 먼저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에이미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눈 앞에서 동생이 다람쥐의 의식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한 에이미는 당황하기 보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에이미는 그에게 방금 전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본 한 유명 TV 쇼 제작자 브라이언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았으며 체스터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와 그 프로그램에 공개할 비디오를 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체스터는 에이미, 브라이언과 함께 촬영을 위해 동물원에 갔고 체스터는 그 곳에서 만난 거대한 고릴라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또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의 몸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람에 체스터가 다시 자신의 몸 속으로 돌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체스터의 몸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체스터는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체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며 잊고 있던 아빠의 과거와 이 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는 물론 자신을 노리고 있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빠른 전개와 기발한 상상력, 유머가 어우러진 흡입력 있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마틴 포드 (Martyn Ford)는 신문사 기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데뷔작 『Imagination Box』 시리즈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책은 바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